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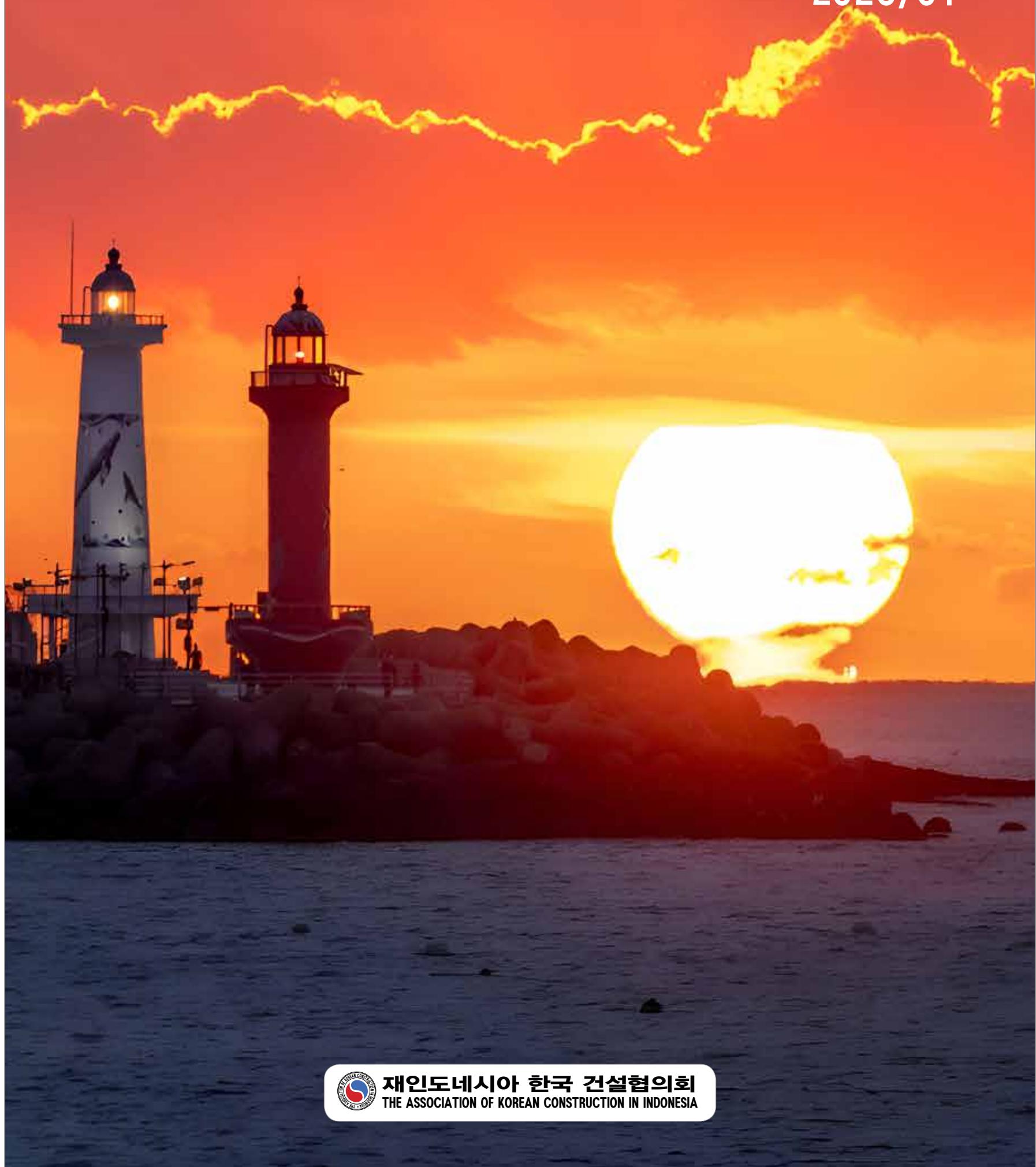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5010-4614
광고문의 : 0821-1122-8827, 0815-1066-5868

VOL. **109**
2026/01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STRUCTION IN INDONESIA

신년사**새해에도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및 금융 환경 변화 등으로 건설업 전반에 많은 도전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사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촉

적해 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한국 건설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인프라 확충과 신수도 개발, 에너지 · 플랜트 · 친환경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확대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기술력 · 안전 · 환경 · 상생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건설 전략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협의회는 새해에도 회원사 간의 긴밀한 협력 강화, 현지 제도 및 정보 공유 확대, 한국 건설 기업의 권익 보호와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회원사 여러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변화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 협회와 회원사들이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사업 번창과 가정의 평안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협의회 회장 황의상 드림

2026 전국 최저임금 발표...**자카르타 최저임금 6.17% 인상, 월 573만 루피아**

전국 최고 브까시 시 Rp5,999,443... 최저 블로라 군 Rp2,345,695

자카르타주정부를 비롯한 전국 28개 주 및 시 · 군의 2026년 최저임금이 24일 발표됐다. 자카르타주는 내년 최저임금(UMP)을 6.17% 인상해, 올해의 5,396,761루피아/월에서 5,729,876루피아(약 342달리)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다양한 제조업이 밀집해 있는 서부자바주 브까시 시(Kota Bekasi)로 5,999,443루피아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중부자바

주 블로라 군으로 2,345,695루피아이다.

쁘라모노 주지사는 “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알파 계수를 0.75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은 확정됐으며, 자카르타의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식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더

해 알파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알파 계수는 경제성장의 어느 정도를 임금 인상에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주 또는 군 · 시 단위 임금위원회가 고용 흡수력과 평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한다. 새 임금 산정 공식에서는 알파 범위가 0.5~0.9로 확대됐으며, 이는 기존 공식의 0.1~0.3보다 높은 수준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정부,
신임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윤순구 전 차관보 임명...
17개월 공백 해소**

1년 5개월 만에 대사직 정상화...
외시 22회 정통 관료 출신
KF-21 분담금 등 방산 협안 및
한인 경제 활성화 과제 산적



▲윤순구 신임 주인도네시아 대사

한국 외교부는 17일 신임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간 공석이었던 주인도네시아 대사직이 정상화되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 자리에는 지난해 7월, 이상덕 전 대사가 재외동포청장으로 영전하며 공석이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후임으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내정하고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까지 마쳤으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방전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임명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박수덕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박 대사대리는 지난 17개월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양국 간 주요 협안과 한인 사회 지원 업무를 도맡

아 수행해 왔다. 이번에 임명된 윤순구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22회 출신으로 1988년 외무부에 입부한 정통 외교관이다. 그는 주미국2등서기관, 주알제리1등서기관, 주제네바1등서기관, 주시카고 영사, 주미국공사 겸 총영사, 주이집트 대사, 주벨기에 · 유럽연합(EU) 대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서도 활동하며 정책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윤 신임 대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급진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우선 양국 간 최대 협안인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 사업을 매듭짓고,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한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동포 관계자는 “오랜 외교 공백을 메우고 인도네시아 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층 강화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윤 전 차관보가 임명되어 다행이다”며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포스트 정선)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신년사] 윤순구 대사 “동포 안전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도 세계도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국제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 국가로서, 대한민국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안정적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2026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 및 경제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이 상호 보완적 경제안보 파트너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래 지난 50여 년간 제조업 협력에서 시작하여 에너지 · 철강 · 건설 · 플랜트 등 기반 산업 협력에서부터 전기차 · 배터리 ·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심화해 왔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를 아우르는 K-콘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와 동남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아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는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한 데에는 각 분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동포분들의 남다른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프라보워 대통령과 지난 11월 1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을 통해 무역 · 투자를 확대하고 안보 · 방산 및 문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이러한 정상 간 합의가 모든 인도네시아 재외동포분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소통하면서 ‘팀 코리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 모두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가교입니다.

우리 대사관은 앞으로도 동포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K-이

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동포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병오년은 붉은 태양의 기운을 품은 말의 해로, 뜨거운 열정과 힘찬 도약,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전진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병오년의 기운처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인 동포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윤순구

[신년사] 적토마의 기운으로 도약하는 2026, “함께해서 든든한 한인 공동체”

위대한 한인 사회의 저력으로 여는 새로운 내일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인도네시아 방방곡곡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고 성실하게 오늘을 일구고 계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적토마(赤兔馬)의 지혜와 기운이 넘치는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도네시아의 급변하는 전환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낯선 제도와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우리 한인 사회는 결국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 여러분의 결집된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기업을 일구며 국위를 선양하시는 기업인 여러분, 낯선 환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단단히 가꾸며 우리 사회의 뿌리가 되어주신 분들,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헌신하시는 학부모님들까지,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인 사회의 화합과 위상 제고를 위해 힘써 주신 각 단체와 기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

를 잊지 않습니다. 행사장 뒤편의 궂은일과 이웃의 이픔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차세대의 성장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은 우리 한인 사회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위대한 저력은 세계 속에서 빛나는 재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든든한 기반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이라 참 든든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긍심은 바로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우리 공동체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2026년은 한-인니 양국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인회는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보호받는 한인 사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

릴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비상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창구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가 꿈을 꾸는 미래 지향적 한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넓혀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

인니 국부펀드 다난따라, 6개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내년 1월 착공



▲수마뜨라 잠비의 대규모 팜농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 CEO 겸 투자 및 다운스트림 장관인 로산 루슬라니는 내년 1월부터 5~6개의 다운스트림 사업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들의 총 투자 규모는 수십 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로산에 따르면, 착수 예정인 프로젝트 중에는 240억 달러 상당의 알루미늄 제련소가 포함되어 있고, 중부 자바 찔라짭에 11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항공연료 정유시설과 동부 자바의 반유왕이에는 바이오에탄올 생산 시설도 추진된다.

또한 코코넛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와 동부자바 및 서누사 가라에서 계획 중인 가금류 관련 프로젝트도 언급됐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여러 잠재적인 다운스트림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7월에 다난따라에 제출했고, 다난따라는 이 가운데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임무를 맡았다.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제시한 목

록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총 38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18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광물 및 석탄 부문에 할당되어 있다.

이 중 가장 자본 집약적인 프로젝트는 깔리만딴과 수마뜨라의 6개 지점에 제안된 디메틸에테르(DME) 공장으로, 이 프로젝트들에만 약 164조 루피아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랫동안 석탄을 디메틸에테르(DME)로 가스화하는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이전 행정부에서는 계획이 중단됐다. 이후 빤라보워 대통령이 해당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국내 기업들은 미국 화학 기업 에어 프로덕츠(Air Products)와 DME 프로젝트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책 관련 문제로 인해 이 회사가 철수했고 이후 정부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18개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되면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노동 집약적인 사업은 18개 지점에 걸쳐 정유소와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5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부문에서는 리아우, 동깔리만딴, 서빠뿌아에서 각각 코코넛, 팜유, 육두구 재배에 중점을 둔 세 개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다. 이를 위해 7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수산 및 해양 부문에는 염소-알칼리 공장(chlor-alkali plant), 틸라피아 필렛(tilapia fillet) 가공 공장,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해조류 기반 중간재인 카라기난(carrageenan) 가공 시설 등 세 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이밖에 중부 자바에 위치한 보크사이트 및 실리카 공장과 바이오향공연료 시설 등 에너지 관련한 20건의 모든 계약 체결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4일 정부는 신수도 누산타라 2단계 사업 관련해 추가로 8개 계약에 서명했으며, 앞서 같은 단계의 12개 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총 20개 계약이 완료됐다. 이로써 동부칼리만딴에 조성 중인 신수도 핵심 지역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누산타라 수도청(OIKN) 바수끼 하디룰요노 청장은 이번 서명

된 건설계약이 국가의 입법·사법 중심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6일 누산타라 현장 방문한 바수끼 청장은 안따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1 일에 서명된 계약 8건 중 5건은 41.81헥타르 부지에 16동으로 구성된 입법부 건물과 구역 개발 패키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두 패키지는 15.15헥타르 부지에 4개 건물과 사법부 단지 건설을 포함한다. 마지막 패키지는 지원 시설로, 2.9헥타르

부지에 3개 동으로 구성된 수도청 업무단지 2단계와 3.07헥타

신수도 2단계 본격 착수... 입법·사법 단지 등 총 12조루피아



▲신수도 누산타라 전경 [신수도청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래 수도 누산타라(Nusantara)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입법·사법 구역

부지에 3개 동으로 조성될 누산타라 경찰서 본부 1단계 건설이 포함된다.

바수끼 청장은 건설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 미적 요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우선하고 있다. 이번 2단계는 1단계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프로젝트가 세계에 모범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 체결은 2028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입법·사법 기관이 위치하게 될 시설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다. 또한 2단계 개발 전체 일정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바수끼 청장은 “현재까지 2025~2029년 2단계 사업의 28개 작업 패키지 중 20개가 서명됐으며, 이 중 14개는 실제 건설 패키지, 6개는 건설 관리 및 감리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입법·사법 구역 개발을 위해 배정된 총 예산은 12조 루피아이며, 다년도 재원 조달 방식으로 집행된다.

바수끼 청장은 “이번 개발은 누산타라에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 처리 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Raya Curug Pos Bitung 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2026년 지역별 최저임금

PROVINSI	KOTA / KABUPATEN	2025	2026	PROVINSI	KOTA / KABUPATEN	2025	2026	PROVINSI	KOTA / KABUPATEN	2025	2026	
DKI JAKARTA	KOTA JAKARTA	Rp 5.396.761	Rp 5,729,876	BANTEN	Kota Pekalongan	Rp 2,545.138	Rp 2,700,926	DI YOGYAKARTA	Kota Probolinggo	Rp 2,876.657	Rp 3,045,172	
BANTEN	Kabupaten Pandeglang	Rp 3,206.640	Rp 3,360,078		Kabupaten Batang	Rp 2,534.383	Rp 2,708,520		Kabupaten Jember	Rp 2,838.642	Rp 3,012,197	
	Kabupaten Lebak	Rp 3,172.384	Rp 3,330,010		Kota Salatiga	Rp 2,533.583	Rp 2,698,273		Kabupaten Banyuwangi	Rp 2,810.139	Rp 2,989,145	
	Kabupaten Serang	Rp 4,857.353	Rp 5,178,521		Kabupaten Pekalongan	Rp 2,486.653	Rp 2,700,926		Kota Kediri	Rp 2,572.361	Rp 2,742,806	
	Kabupaten Tangerang	Rp 4,901.117	Rp 5,210,377		Kabupaten Magelang	Rp 2,467.488	Rp 2,607,790		Kabupaten Bojonegoro	Rp 2,525.132	Rp 2,685,983	
	Kota Tangerang	Rp 5,069.708	Rp 5,399,405		Kabupaten Karanganyar	Rp 2,437.110	Rp 2,592,154		Kabupaten Kediri	Rp 2,492.811	Rp 2,651,603	
	Kota Tangerang Selatan	Rp 4,974.392	Rp 5,247,870		Kota Solo	Rp 2,416.560	Rp 2,570,000		Kota Blitar	Rp 2,481.450	Rp 2,639,518	
	Kota Cilegon	Rp 5,128.084	Rp 5,469,922		Kabupaten Boyolali	Rp 2,396.598	Rp 2,537,949		Kabupaten Tulungagung	Rp 2,470.800	Rp 2,628,190	
	Kota Serang	Rp 4,418.261	Rp 4,665,927		Kabupaten Klaten	Rp 2,389.82	Rp 2,538,691		Kabupaten Lumajang	Rp 2,429.764	Rp 2,578,320	
WEST JAVA	Kota Bekasi	Rp 5,690.752	Rp 5,992,931	EAST JAVA	Kota Tegal	Rp 2,376.683	Rp 2,526,510	BALI	Kota Madiun	Rp 2,422.105	Rp 2,588,794	
	Kabupaten Karawang	Rp 5,599.593	Rp 5,886,852		Kabupaten Sukoharjo	Rp 2,359.488	Rp 2,500,000		Kabupaten Blitar	Rp 2,413.974	Rp 2,567,744	
	Kabupaten Bekasi	Rp 5,558.515	Rp 5,938,885		Kabupaten Banyumas	Rp 2,338.410	Rp 2,474,598		Kabupaten Magetan	Rp 2,406.719	Rp 2,553,866	
	Kabupaten Purwakarta	Rp 4,792.252	Rp 5,052,856		Kabupaten Purbalingga	Rp 2,338.283	Rp 2,474,721		Kabupaten Sumenep	Rp 2,406.551	Rp 2,553,688	
	Kabupaten Subang	Rp 3,508.626	Rp 3,737,482		Kabupaten Tegal	Rp 2,333.586	Rp 2,484,162		Kabupaten Nganjuk	Rp 2,405.255	Rp 2,564,627	
	Kota Depok	Rp 5,195.721	Rp 5,522,662		Kabupaten Pati	Rp 2,332.350	Rp 2,485,000		Kabupaten Ponorogo	Rp 2,402.959	Rp 2,549,876	
	Kota Bogor	Rp 5,126.897	Rp 5,437,203		Kabupaten Wonosobo	Rp 2,299.521	Rp 2,455,038		Kabupaten Madiun	Rp 2,400.321	Rp 2,553,221	
	Kabupaten Bogor	Rp 4,877.211	Rp 5,161,769		Kabupaten Pemalang	Rp 2,296.140	Rp 2,433,254		Kabupaten Ngawi	Rp 2,397.928	Rp 2,556,815	
	Kabupaten Sukabumi	Rp 3,604.482	Rp 3,893,201		Kota Magelang	Rp 2,281.230	Rp 2,429,285		Kabupaten Bangkalan	Rp 2,397.550	Rp 2,550,274	
	Kabupaten Cianjur	Rp 3,104.583	Rp 3,338,359		Kabupaten Purworejo	Rp 2,265.937	Rp 2,401,961		Kabupaten Trenggalek	Rp 2,378.784	Rp 2,530,313	
	Kota Sukabumi	Rp 3,018.634	Rp 3,192,807		Kabupaten Kebumen	Rp 2,259.873	Rp 2,400,000		Kabupaten Pamekasan	Rp 2,376.614	Rp 2,528,004	
	Kota Bandung	Rp 4,482.914	Rp 4,737,678		Kabupaten Grobogan	Rp 2,254.090	Rp 2,399,186		Kabupaten Pacitan	Rp 2,364.287	Rp 2,514,892	
	Kabupaten Bandung Barat	Rp 3,736.741	Rp 3,990,428		Kabupaten Temanggung	Rp 2,246.850	Rp 2,397,000		Kabupaten Bondowoso	Rp 2,347.359	Rp 2,496,886	
	Kabupaten Sumedang	Rp 3,732.088	Rp 3,949,855		Kabupaten Brebes	Rp 2,239.801	Rp 2,400,350		Kabupaten Sampang	Rp 2,335.661	Rp 2,484,443	
	Kabupaten Bandung	Rp 3,757.284	Rp 3,972,202		Kabupaten Blora	Rp 2,238.430	Rp 2,345,695		Kabupaten Situbondo	Rp 2,335.209	Rp 2,483,962	
	Kabupaten Indramayu	Rp 2,794.237	Rp 2,910,254		Kabupaten Rembang	Rp 2,236.168	Rp 2,386,305		DI YOGYAKARTA	Yogyakarta	Rp 2,417,495	Rp 2,827,593
	Kota Cirebon	Rp 2,697.685	Rp 2,878,646		Kabupaten Sragen	Rp 2,182.200	Rp 2,337,700		Badung	Rp 3,534,338	Rp 3,791,002	
	Kabupaten Cirebon	Rp 2,681.382	Rp 2,880,797		Kabupaten Wonogiri	Rp 2,180.587	Rp 2,335,126		Denpasar	Rp 3,298,116	Rp 3,499,878	
	Kabupaten Majalengka	Rp 2,404.632	Rp 2,595,368		Kabupaten BanjarNEGARA	Rp 2,170.475	Rp 2,327,813		Gianyar	Rp 3,119,080	Rp 3,316,798	
	Kabupaten Kuningan	Rp 2,209.519	Rp 2,369,379		Kota Surabaya	Rp 4,961.753	Rp 5,288,796		Tabanan	Rp 3,102,520	Rp 3,287,678	
	Kota Tasikmalaya	Rp 2,801.962	Rp 2,980,336		Kabupaten Gresik	Rp 4,874.133	Rp 5,195,401		Klungkung	Rp 2,996,561	Rp 3,207,459	
	Kabupaten Tasikmalaya	Rp 2,699.992	Rp 2,871,874		Kabupaten Sidoarjo	Rp 4,870.511	Rp 5,191,541		Karangasem	Rp 2,996,561	Rp 3,207,459	
	Kabupaten Garut	Rp 2,328.555	Rp 2,472,227		Kabupaten Pasuruan	Rp 4,866.890	Rp 5,187,681		Bangli	Rp 2,996,561	Rp 3,207,459	
	Kabupaten Ciamis	Rp 2,225.279	Rp 2,373,643		Kabupaten Mojokerto	Rp 4,856.026	Rp 5,176,101		Jembrana	Rp 2,996,561	Rp 3,207,459	
	Kabupaten Pangandaran	Rp 2,221.724	Rp 2,351,250		Kabupaten Malang	Rp 3,553.530	Rp 3,802,862		Buleleng	Rp 2,996,561	Rp 3,207,459	
	Kota Banjar	Rp 2,204.754	Rp 2,361,777		Kota Malang	Rp 3,507.693	Rp 3,736,101		Kalimantan	Kota Samarinda	Rp 3,724,437	Rp 3,983,882
CENTRAL JAVA	Kota Semarang	Rp 3,454.827	Rp 3,701,709		Kota Batu	Rp 3,360.466	Rp 3,562,484		Timur	Kota Balikpapan	Rp 3,701,450	Rp 3,856,694
	Kabupaten Demak	Rp 2,940.716	Rp 3,122,805		Kota Pasuruan	Rp 3,358.557	Rp 3,555,301		Kalimantan Selatan	Kota Banjarmasin	Rp 3,599,182	Rp 3,855,894
	Kabupaten Kendal	Rp 2,783.455	Rp 2,992,994		Kabupaten Jombang	Rp 3,137.004	Rp 3,320,770		Kalimantan Tengah	Palangkaraya	Rp 3,525,154	Rp 3,686,138
	Kabupaten Semarang	Rp 2,750.136	Rp 2,940,088		Kabupaten Tuban	Rp 3,050.400	Rp 3,229,092		Kalimantan Barat	Pontianak	Rp 3,024,820	Rp 3,205,220
	Kabupaten Kudus	Rp 2,680.485	Rp 2,818,585		Kota Mojokerto	Rp 3,031.000	Rp 3,208,556		Kalimantan	Kota Tarakan	Rp 4,460,405	Rp 4,740,000
	Kabupaten Cilacap	Rp 2,640.248	Rp 2,773,184		Kabupaten Lamongan	Rp 3,012.164	Rp 3,196,328		Utara	Kabupaten Nunukan	Rp 3,652,907	Rp 3,870,000
	Kabupaten Jepara	Rp 2,610.224	Rp 2,756,501		Kabupaten Probolinggo	Rp 2,989.407	Rp 3,164,526					



대한민국 1위 전선회사 LS전선,
인도네시아에서도 자랑스런 1위입니다



저압케이블/Building 케이블

[인물열전24] 국제 도시 자카르타 설계한 ‘알리 사디킨’

인도네시아 수도이자 대도시인 자카르타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500년에 가까운 역사, 끝없는 인구 유입, 식민지의 흔적과 불평등이 뒤엉킨 공간. 오늘날 자카르타가 안고 있는 교통 체증과 침수, 인프라 노후 문제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 도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무질서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1960년대 무질서했던 자카르타의 현대화에 기여한 인물이 알리 사디킨(Ali Sadikin, 애칭 Bang Ali)이다. 그는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자카르타의 제4대 주지사를 지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던 자카르타 주지사”라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지도자 이기도 했다. 알리 사디킨은 1926년 7월 7일 서부자바주 수머당 지역의 순다족 가정에서 태어났다.

일본 점령기에는 스마랑 해운 교육기관(P3B, 현 스마랑 해운 과학 폴리테크닉)에서 수학하며 일찍부터 바다와 군인의 삶을 꿈꿨다. 인도네시아 혁명기(1945~1949년)에는 국민보안 청 해군, 즉 인도네시아 해군의 전선에 참여해 네덜란드군과의 프로젝트 작전(Operasi Produk)과 크라이 작전(Operasi Kraai)에 참전했다. 독립 이후에도 해군에 남아 1950년대 후반 북부술라웨시의 뼈르메스타(Permeesta) 반란 진압에 참여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전투 방식은 “헐리우드 스타일”로 불릴 만큼 과감했다고 전해진다. 군 경력은 이후 그의 도시 통치 방식에도 강하게 반영됐다. 알리 사디킨은 도시를 ‘행정 단위’가 아니라 전장(battlefield)으로 인식했다.

“자카르타를 현대화하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1966년 4월 28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알리 사디킨을 자카르타 주지사로 임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메르데카 궁에서 취임 선서를 한 주지사였다. 당시 자카르타는 여전히 식민지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도시였다. 비포장도로, 울창한 숲, 무허가 주거지가 도심 곳곳에 남아 있었다. 알리 사디킨의 목표는 분명했다. 자카르타를 세계적인 도시로 바꾸는 것.

그는 이를 위해 기존의 금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도박 합법화 △매춘 묵인 △가족계획 정책 적극 도입 등. 오늘날 기준으로도 논쟁적인 정책들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더욱 파격적이었다. 특히 무슬림 다수 사회에서 도박과 유흥 산업을 공공 재정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나 알리 사디킨은 물러서지 않았다. 취약한 조세 기반 대신, 그는 도박장에 사실상의 ‘죄악 세(sin tax)’를 부과했다. 이 재원은 도로, 병원, 공공시설 건설로 이어졌다. 비판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응수했다. “그렇다면 도로도 이용하지 말고, 병원도 이용하지 말라. 도박이 그것들을 만들었다.”

알리 사디킨 재임 기간, 자카르타의 물리적 풍경은 급격히 바뀌었다. 그가 추진한 대표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따만 이스마일 마르주끼(TIM): 예술 · 문화 · 과학 복합단지 △라구난 동물원 이전 및 재개발 △안풀 드림랜드 개발: 과거 말라리아의 온상이던 늪지를 해안 관광지로 전환 △스닌 프로젝트(Senin Project) 등 도심 재개발 등.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빈민가가 철거



▲알리 사디킨 자카르타 주지사 (1966년 공식 사진)

됐다. 알리 사디kin은 베짱(자전거 인력거)을 금지하고 노점상을 단속했으며, 대규모 토지 재편을 통해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넘겼다. 도시 빈민의 삶은 그 과정에서 쉽게 밀려났다.

그럼에도 그는 단순한 개발 관료는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깜뽕 공동체와 상호부조(고통로용)를 회복하려 했고, 법률구조 재단(LBH)을 지지하며 도시 빈민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의 필

요성도 인정했다. 그의 정책은 늘 모순을 안고 있었다.

알리 사디kin 시기, 자카르타에서는 원주민 버파위(Betawi) 문화의 부흥이 본격화됐다. 온델 온델 공연과 버파위 가면무용은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다. 그는 1960년대 와리아(waria, 트랜스젠더)를 위한 옹호 단체 설립을 허용했고, 1975년에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법적 성별을 인정받은 트랜스 여성의 결혼식에 공개적으로 참석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였다.

권력과 거리 두기, 그리고 ‘50인 청원’

알리 사디kin은 결국 정치적 부담 속에 주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도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1980년 발표된 ‘50인 청원(Petition of Fifty)’에서 그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빤짜실라 독점 해석과 권력 집중을 공개적

으로 비판했다. 군 출신이자 국가주의자였던 그는, 동시에 권력의 무제한적 집중에는 반대했다. 그의 존재감과 대중성은 이 청원이 전면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알리 사디kin은 2008년 5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2025년 8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그에게 명예 대장 계급을 추서했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엇갈린다. 도시는 발전했지만 많은 사람이 밀려났다. 질서는 생겼지만 공동체는 균열됐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의 자카르타는 알리 사디kin 없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카르타를 사랑했고, 동시에 냉정하게 다뤘다. 도시를 이상으로 가 아니라, 현실로 바꾸려 했던 인물이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메쎄뮌헨 한국대표부]

‘Expo Real Asia Pacific 2026’ 개최 안내

메쎄뮌헨 한국대표부에서 아래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po Real Asia Pacific 2026’ 행사 개요]

- 국문 행사명: 싱가포르 도시개발 · 산업용 인프라 투자유치 서밋 (2026년 첫 전시회)
- 영문 행사명: Expo Real Asia Pacific 2026
- 기간: 2026년 6월 15~17일
- 장소: 싱가포르 센텍 전시컨벤션센터
- 전시분야: 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의 스마트 시티 · 산업용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투자 · 파이낸스, 프롭테크, 물류 · 데이터

센터 등

- 예상 참가 규모: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 아시아 · 태평양 주요국 정부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100여 개사 / 2,000명 전문 참관객(LP, GP, 디벨로퍼, 각국 정부 관계자 포함)
- 공식 홈페이지: <https://expo-realasiapacific.com/2026/>
- 동시개최: 아시아 인프라 포럼 (AIF, 링크) / 세계도시정상회의 (WCS, 링크)
- 주최: 메쎄뮌헨

– 파트너/후원: 태국 동부경제 회랑(EEC)

– 협력기관(Supporting Organisations): ACVN(베트남 도시협회), VNREA(베트남 부동산협회), VUPDA(베트남 도시계획 협회), REITAS(싱가포르 리츠협회), Tech Singapore Advocates, CRECC(중국 부동산상회), ACE, SG(싱가포르 스타트업 협회) 등

문의처: 메쎄뮌헨 한국대표부 이영민 팀장(M: +82-10-9453-5955 / E: ym@works-muenchen.kr)



주식회사 거광이엔지
PT GEO KWANG ENG

SMC 욕실돌 (천장재)
SMC 간접등 키트
SMC 하부장
SMC 욕조
SMC 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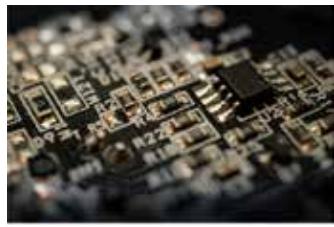


+62 811 2851 4200
luum.indonesia
luumvanity.com

WhatsApp



인니 정부, 10개 산업단지에 실리카 산업 육성 계획



▲반도체 칩 이미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20년간 실리카(Silica) 산업의 다운스트림 부문 발전을 위한 주요 기반이 될 10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실리콘의 핵심 원료인 실리카를 현 정부가 설정한 국내총생산(GDP) 8%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산업부는 2025년부터 2045년까

지의 해당 분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0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담은 산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단지들이 모두 신규 단지인지 기존 단지를 포함하는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실리콘은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석영이나 규암, 규산염 광물에서 산소와 결합된 실리카 형태로 존재한다.

이 물질은 반도체 칩과 태양광 모듈(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로 알려져 있음)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s)의 전구체다. 따라서 실리콘 가공은 전 세계적으로 각각 기술 발전과 에너지 시장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제조 산업에 각각 활용될 수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실리카 매장량은 78억 톤, 석영석 2,480만 톤, 규암이 16억 5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실리카는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자체만으로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정부가 투자 유인 요소로 실리카의 풍부한 공급량을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화학·제약·섬유산업 총괄국장 또피 바와지르는 같은 성명에서, “다운스트림 개발을 통해 태양광용 실리콘 웨이퍼는 부가 가치를 1,300배까지, 전자용 웨이퍼로 가공 시 27배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이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부터 2045년까지의 로드맵은 실리카 가공을 중간 단계로 확대해 야금용 실리콘(MG-Si)과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성명은 로드맵이 원자재 가공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 에너지 공급, 구매처, 규제, 환경까지 포함함을 시사한다.

태양광 패널의 주요 구매처는 국영전력사 PLN과 인도네시아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들이다. 반도체는 2022년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핵심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제조사 등에게 판매될 수 있다.

반도체는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단순한 것부터 슈퍼컴퓨터나 고성능 군사 장비 같은 정교한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고성능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정교한 반도체는 기술적으로 민감해 일부 국가에서는 반도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의 생산을 철수하도록 압박해왔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영향력 경쟁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미국이 인도네시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기술 분야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이달 초 독일과 미국 기업 컨소시엄은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리아우 제도 바탕에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 허가 발급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정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반따르그방 매립지 2년 내 정리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부 자바주 브까시에 있는 대규모 반따르그방 매립지를 2년 안에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7일 전했다.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공정은 주로 소각을 통해 전기 또는 열에너지로 전환해 폐기물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가 심각한 폐기물 관리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 양은 5,663만 톤에 달했으며, 그 중 약 61%는 여전히 무분별한 노천 투기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식량조정장관 출끼플리 하산은

지난 16일 자카르타에서 “반따르그방은 2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반동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11년 동안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가 단 3건만 시작된 이유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투자 매력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게 출끼플리 장관의 설명이다.

새 규정에 따라 지방 정부는 부지 확보만 담당하면 되고, 인허가 신청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 하면 된다. 이후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가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정하고 국영전력회사 PLN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출끼플리는 현재 7개의 폐기물



▲반따르그방 매립지(사진=위키피디아 인도네시아)

에너지화 프로젝트가 논의 중이며 향후 2년 이내에 34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난따라는 지난 11월 6일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를 위한 첫 번째 입찰을 시작했다. 1단계는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발리, 서부자바의 반동과 브까시, 반동의 땅그랑, 중부자바의 스마랑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들은 전국에 총 91조 루피아 규모의 33개 발전소를 건설하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로, PLN의 전력사업계획(RUPTL)에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사업은 다난따라와 민간 투자자 간의 합작 투자로 추진되며, 다난따라는 각 프로젝트에서 최소 30%의 지분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 51%까지 늘릴 수 있다. 고 다난따라 최고투자책임자 빈두 샤흐리르가 설명했다. 투자 재원은 약 30%를 자기자본, 70%를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는 환경 감시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생태관찰습지보전연구소(Ecoton)의 사무총장 다루 스띠오리니는 폐기물 에너지화가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효과적인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각이 아닌 폐기물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적인 면에서도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정부 예산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에너지화 시스템을 채택한 수라바야의 브노워(Benowo) 매립지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하루 1,000톤 처리 목표와 발전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와 유해 소각 처리 비용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NEXFIL
대한민국 K-브랜드

넥스필 건축용 윈도우 필름

30년간의 제조 노하우로 **MADE IN KOREA** 정품시공과 최상의 보호효과를 제공합니다.

뛰어난 열차단 단열효과

유해 자외선 99.9% 차단

냉난방비 연간 30% 절약

쾌적한 실내 환경

외부 시선차단 및 프라이버시 보호

내부 반사 개선 및 선명한 시인성

건물

공장

주택

사무실

음식점

창고

제품 및 시공 상담

021 3886 5163
0811 133 2290
0856 874 6625

PT RMAX UTAMA INC
Rukan Avenue Jakarta Garden City(JGC) No. 8-030, Jakarta Timur, 13910
www.nexfil.com www.nexfil.co.id @nexfil.id Tel : 021 3886 5163
Nexfil Indonesia

KG케미칼 · 동서화학, 300억원 규모 인도네시아 합작공장 구축 MOU

KG그룹이 석유화학 사업 확장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동서화학공업과 협력한다.

KG그룹 계열사 KG케미칼은 지난 15일 동서화학공업과 인도네시아 합작 투자를 위한 '나프탈렌 오일 · PNS 생산 공장 투자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나프탈렌 오일을 바탕으로 최종 제품인 'PNS'을 만들기 위한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조건은 추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투자금은 약 300억 원이 될 전망으로, 연간 목표 생산량은 약 3만 t 규모다.

KG케미칼은 내년 초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상반기 생산 공장을 착공하는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G케미칼 관계자는 "PNS 생산 공정의 주원료인 나프탈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생산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사업 기회를 탐색하고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프탈렌오일과 PNS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낯설지만, 건설과 산업 전반에서 꼭 넓게 쓰이는 대표적인 기초 · 중간 소재다.

나프탈렌오일은 석유 또는 콜타르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물질로, 열에 강하고 산화에 잘 견디는 특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윤활유 첨가제나 산업용 오일의 기초 원료로 활용되며, 화학 제품을 만드는 중간 단계 소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PNS는 나프탈렌을 기반으로 만

든 고분자 화합물로, 콘크리트 훈화제나 분산제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시멘트에 소량만 첨가해도 입자들이 고르게 퍼지도록 도와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강도를 높일 수 있어, 고층 건물이나 대형 인프라 공사에 필수적인 소재로 쓰인다. 이 외에도 폐수 처리, 슬러지 점도 저감, 염료 ·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산업 공정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

이번 합작 사업의 핵심은 이 두 소재를 하나의 생산 체계로 묶는 데 있다.

나프탈렌오일을 확보한 뒤 이를 곧바로 PNS로 가공하는 일괄 생산 구조를 구축하면, 원료 조달과 물류 과정이 단순해지고 생산 비용도 낮출 수 있다.

특히 원료 수급 변동성이 큰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수익



▲인도네시아 생산공장 투자사업 MOU [KG케미칼 제공]

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시장 환경도 이러한 전략에 힘을 실는다.

나프탈렌 계열 제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PNS가 포함된 콘크리트 훈화제 시장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 · 항만 · 주택 등 사회간접

자본 건설이 늘어날수록 고강도 · 고내구성 콘크리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이에 따라 PNS 같은 고성능 훈화제의 사용도 확대되는 구조다.

석유화학 산업 전반은 공급 과잉과 경기 둔화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어, 범용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재경일보]

PT COSMO GFRP INDONESIA, 카라왕에서 GFRP Rebar 공장 준공식 개최 정부 · 산업계 · 바이어 참석...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생산 기반 구축



▲PT COSMO GFRP INDONESIA, 준공식 테이프 커팅

PT COSMO GFRP INDONESIA 박세길 대표(법인장)는 12월 8일 서부자바 카라왕 SuryaCipta Industrial Estate에서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니 산업자원부(SANDBU) 차관, BSN(국가표준청) 청장, 까라왕 군수, 까라왕 군의회 의장, 인

도네시아 로컬 주요 건설 · EPC 바이어, 그리고 한국 본사 지주사 대표단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준공식 행사는 공장 투어, 설비 시연, 제품 전시존(GFRP Rebar & Wire Mesh), 리본 커팅식, 기념 촬영, 네트워킹 리셉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GFRP 제품의 성능 및 생산 프로세스를 직접 확인했다.

GS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유리섬유를 플라스틱 수지에 넣어 만든 복합소재이다. 철 대비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고 내식성이 우수해 녹슬지 않고 전기절연성, 내열 내수성이 우수하며 성형가공이 용이하다.

주용도는 건설자재, 산업설비, 자동차·선박부품, 풍력발전 블레이드, 전기·전자부품 케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 한국 건설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에 준공한 PT COSMO GFRP INDONESIA에서 GSRP 생산 공급으로 향후



▲PT COSMO GFRP INDONESIA 공식 카다록 표지

가져올 변화를 강조했다. PT COSMO GFRP INDONESIA는 향후 전국 총판 네트워크 구축 및 건설업계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에 기여 할 계획이다.

[CHANGJO 편집부]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어스온, 인도네시아 해상 유전 지분 34% 확보

페트로나스·페르타미나와 북케타팡 광구 공동 탐사…연내 시추 착수
동남아 자원 클러스터링 전략 가속, 인도네시아 핵심 거점 부상



▲SK어스온은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의 자회사로부터 인도네시아 노스케타팡 탐사 광구의 지분 34%를 인수했다. 사진=페르로나스

SK이노베이션의 자원 개발 자회사인 SK어스온(SK Earthon)이 인도네시아 유망 해상 광구의 지분을 확보하며 동남아시아 자원 개발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구는 올해 말까지 첫 탐사 시추가 계획되어 있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25일(현지시각) 네덜란드의 해양·에너지 전문 매체인 오프쇼어 에너지가 보도했다.

◇ 인도네시아 '노스케타팡' 광구 지분 34% 확보… 3사 시너지 기대

SK어스온은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의 자회사로부터 인도네시아 노스케타팡(North Ketapang) 탐사 광구의 지분 34%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SK어스온은 운영

권자인 페트로나스(지분 51%),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페르타미나(Pertamina, 지분 15%)와 공동 탐사를 수행한다.

3사는 올해 안에 첫 탐사정 시추를 목표로 개발 일정을 추진 중이다. 노스케타팡 광구는 자바섬 북동부 해상에 위치하며, 최근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석유 층이 발견되어 추가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 동남아 '자원 개발 하브' 전략… 클러스터링 시너지 극대화

이번 지분 확보는 지난 5월 세르팡(Serpang)과 비나이야(Binaiya) 광구 지분을 따낸 데 이은 인도네시아 내 세 번째 성과다.

노스케타팡 광구는 기존에 확보 한 세르팡 광구와 인접해 있어 운영 효율성과 자원 개발 시너

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SK어스온은 베트남(15·1 광구 등),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자원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클러스터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상류 사업'에서 '탄소 감축' 까지… 한·인니 CCS 프로젝트 병행

SK이노베이션은 자원 탐사(업스트림)와 더불어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E&S는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규제당국(SKK Migas)과 함께 한국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도네시아 고갈 가스전 등에 저장하는 '국경 통과 CCS'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탄소 저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SK의 중장기 저탄소에너지 전환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SK어스온 관계자는 "이번 노스케타팡 지분 확보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사업 영토를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며 "검증된 탐사 역량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이코노믹]



김재훈의 세무상식

갑근세(PPh21) 계산 규정이 23년 12월 27일 정부령 58/2023 호가 공포되었고,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거의 복잡한 계산 방식에서 24년 1월부터는 한국과 비슷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 TER(Tarif Efektif rata-rata : 월평균 실효세율)를 적용하여 월소득에 TER를 곱하여 산출한다.

1월부터 11월까지는 과세 기간



김재훈 대표

감하여 12월 갑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과세 기간동안 공제한 갑근세가 연간 소득세 총액을 초과할 경우 갑근세 공제

"12월 갑근세는 TER 대신 소득세법 제 17조 요율 적용"

동안 정규직 직원에 대한 소득세법 제 21조 갑근세는 월평균 실효세율(TER)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12월 과세 기간

의무자인 고용주(회사)는 초과된 갑근세를 근로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

또한 "회사(고용주)는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천정수 증명서(BPA1)를 소득 수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령 제 7조 2항)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세자문관 및 고총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 일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 kimjhoon@bngconsulting.co.kr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제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건설, 토목, 플랜트**PT.HESSA**

자카르타 0821 1464-1343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060-7257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SK ECO PLANT

자카르타 021 2709-4662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삼화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2988-0418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PT. ALAM DUNIA ENG & CONST(ADEC)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땅그랑 021 5579-8505

PT.SAMJIN건축, 주택, 플랜트, 하이테크,
EMP방호,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와
자카르타 021 2245-0670**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PT. ELJINDO토목, 일반건설, 공장증축
자카르타 021 7883-3357**PT. SPACE TECHNOLOGY**플랜트 및 공장 설계/제작/시공/O&M
찌까랑 021 8990-2215**PT. P&I INDONESIA**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IUPLT(Solar Plant)

자카르타 021 2782-2600

PT. SSA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62 812 1955-5736**PT. DAEAH E&C INDONESIA**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1-5574-1492**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SHINHWA TECHNO PLANT**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PT. UTAMA JAYA TEKNIK**Engineering, Construction &
Manufacture
땅그랑 021 5577 4507~09**PT. HANS JAYA UTAMA**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PT. WOOL INDONESIA**플랜트, 기계, EPC
땅그랑 021 5935-0229**PT.HAECHANG DEVELOPMENT**토목(터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딕터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딕터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기초정보를 본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khong3000@gmail.com, 0821 1122 8827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INI GEO
친환경 옹벽, 사면보호, 벽면녹화
자카르타 021 581-4742

PT. KUMYI PLANT INDONESIA
JAKARTA SELATAN
자카르타 (021) 726 9976

PT. KUMGANG HYUNDAI INDONESIA
커튼월 및 창호 방화도어, 셔터, 자동문 각종 팬넬 공사
땅그랑 021 5568 5408

PT. KSK BANGUN KARYA
건설,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591-2718

PT. Muns Cipta Bangun
토목, 철골, 건축, 인테리어
땅그랑 021 5541-747

PT. BUANA INSKONSI JAYA
Waste Energy Plant, Electrical, HVAC
땅그랑 021 3973-1528

PT. SUNG HWA PLUS
종합건설업
자카르타 021 4064-2114

PT. INKO JAYA KONSTRUKSI
종합건설업
자카르타 021 8263-1843

공단 및 지사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40-0025

한국 농어촌 공사
자카르타 021 7591-3414

국가철도공단
자카르타 021 5058-8812

건설공제조합
자카르타 021 5290-4042

산업인력공단
자카르타 021 7918-6012

KIND
자카르타 0851 2192-5762

ENGINEERING

PT.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유신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2409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SAMSUNG C & T Corporation
자카르타 021 2988-0418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PT. MULTI PERSADA
Construction & Engineering, Civil,
M&E, Treading
땅그랑 021 5578-0702

PT. PAJAR EKA YOU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PT. FAJAR EKA YOU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PT. JAYA TEKNIK KONSTRUKSI(Besar/PMDN)
Engineering & Construction
반튼/세랑 021 5574-1492

PT. VISION AND YOUNG
전기공사, 자동제어공사, 환경공사
땅그랑 021 2904-7301

건축설계 사무소

정립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PT.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전기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제일연마
Resinoid Grinding / Precision Grinding
Resin Bonded Wheels Disc
찌까랑 021 8991-1071

LS Electric (구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PT. SAMJIN INDONESIA ENC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자카르타 0812 8293-0448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PT. YOC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Lapp Cable), Elec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iding
땅그랑 021 5949-2764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PT. WOOJIN CONSTRUCTION
Electrical, Mechanical, Fire alarm,
자카르타 021 8991-3049

PT. YUNSUNG INDONESIA
전기&소방
찌까랑 021 8263-1844

건축자재

LS전선
끼리왕 021 3973-3988

PT.DONGSEO FURNITURE
U-PVC 우드파니처 우드 문
끼리왕 021 591-5631/37

PT.DWI MITRA ANUGRAH
에폭시, 바닥시공
021 880-3515, 0812 100-0055

PT. BITUTEK
지붕자재 아스팔트 쉼글, 방수시트 제조
찌부루 021-2906-0202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o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PT. TOPSCO STEEL UTAMA
KRAKATAU POSCO
후판 열연 건자재 공급
찌레곤 0813 8039 7748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PT. MIRAN

채움디자인
Design & Build
자카르타 021 8946 9398

PT.WELL-Z-IN(웰즈인)
Interior Furnitur & Architecture
자카르타 021 2912-4010

PT,DESIGN ACE
Creative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urniture, Sign
자카르타 021 7590-8858

PT,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INI GALLERY
INTERIOR & FURNITURE
자카르타 021 581-4742

PT,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PT. IND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르 021 8430-7773

PT. KES INDONESI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LIVING A&I
Architec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포워딩

JASON LOGISTIC INDONESIA
Air Cargo, Sea Cargo, Warehouse,
Customer Service
자카르타 021 4585 5919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ABADI TRANS LOGISTIC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4683 6025

PT. ACE MULTITRANS CARGO
International Air and Sea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260 4233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주)소리항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PT.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PT.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PENASCOP LOGISTIK
TRANSIAGI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7220

PT.JUST IN TIME
자카르타 0813 1030-4644

PT. Pertama Logistic Service
땅그랑 021 558-6446

**PT. KORNET LOGISTIC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항공/해상 수출입 통관
자카르타 021 4587-7350

**PT.GLOBAL CHEM INTERNATIONAL
LOGISTIC & TRADING**
찌카랑 021 2956 3356/57

ITL
INTERNAS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자카르타 021 5011 2120

PT.KGL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56 3356/57

PT.BlueRay Indonesia Indonesia
Door To Door 물류회사
자카르타 웃츠앱 +82 10 5259 0757

증장비, 기계

현대건설기계
증장비
자카르타 021 5290 1493

KOTRACK
증장비
자카르타 82 10 8732-2928

PT.SUMA SUKSES SEJAHTERA
자카르타 021 522-2241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PT.CNB MACHINERY INDONESIA
건설관련 기계판매

땅그랑 021 5572-1090

건물관리, 용역

ECONE
건물관리, 용역, 방역, 살균,
자카르타 081 1111 8057

컨설팅

OK 컨설팅

인허가, 비자, 세무, 부동산
자카르타 0852 8185-5551

NOEL 컨설팅

인허가, 비자, 세무, 부동산
자카르타 021 5010 3699

두왕 컨설팅

법인설립, 기업법률자문 전문
자카르타 021 2941-1043 (ext 102)

WINNERS CONSULTING

기업설립,
자카르타 021 5012-3277

반석 컨설팅

세무회계,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9193

PT. GAON INDO JAYA

기업설립
땅그랑 021 5579-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땅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기업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기타 진행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기타 진행
021 799-6182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인력관리, 용역

PT.AGUNG SINAR BUNGKUK
인력파견 관리, 경비, 생산직, 사무직 등
자카르타 021 8952 7463

PT.Cahaya Research Indonesia
관리직 인력 헤드헌팅, 사무직 물류 소
매인력 파견, IT
자카르타 0813 1509 9567



재인니 한국 건설협회 가입 및 문의

박건우 부회장 (0815 1902 4123)

제6차 한-인도네시아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2025.12.17.(수) 「제6차 한-인도네시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 협의회(이하 ODA 통합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 양국 ODA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수원국 내 유·무상 ODA 사업 종합 점검 △향후 사업 방향 협의 등을 위해 외교부와 기재부가 공동 개최하고 수석대표를 순차적으로 수임하였다. 우리 측은 이규호 개발협력국장, 인도네시아 측은 푸롯하리 사티야카(Putut Hari Satyaka) 국가개발계획부(수원총괄기관, BAPPENAS)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 120-4번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EDCF) 중기 운용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측과 후보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는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의 개발경험·강점이 인도네시아의 개발수요와 접점을 이루는 인재양성, 농업, 보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통합적·효과적 ODA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금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장 중심의 책무성 있는 사업 관리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우리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 측은 인도네시아 측에 대외경제협력기금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PT. MIRAN METAL INDONESIA

금속 절단, V-컷팅, 절곡 및 기계제작

Steel Door & Frame / Trench & Cover / Gate & Handrail / Ladder



Jl. Raya Serang Km 16, Sukamulya, Cikupa, Tangerang
Tel : 021-5969-691, E-mail : pt.miranmetalindonesia@gmail.com

JTCC

JT Construction Chemicals

Injection System
(Polyurethane, Epoxy, Acrylic)

Waterproofing
(Sheet, Polyurethane, Polyurethane)

Flooring
(Epoxy, Polyurethane, Polyurethane, Self Leveling)

Grouting
(Cement, Epoxy)

Painting
(Anti-Fire, Interior, Exterior)

Protective Coating
(Chemical, UV-resistance)

Sealant
(MS, PU, Silicone, Polyurethane)

Structural Strengthening
(Carbon Fiber, Glass Fiber)

Polyurethane & Foam Machine
(PUSMAK)

고품질 건설에 전념합니다

지속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합니다.



Jl. Swadaya 2 No. 114 RT 002/RW01
Kec. Mustika Jaya, Kel. Mustika Sari, Bekasi, 17157

Telp : (021) 82740458

Website : www.id-jtcc.com marketing@id-jtcc.com

킨텍스,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건설·안전 산업의 미래가 한곳에! 조기신청 참가기업 혜택 제공



- 2026년 10월 개최, AI·로봇·드론 융합기술 중심으로 최신 건설·안전 솔루션 선보여
- 2월 27일까지 신청 시 참가비 할인과 사전 홍보 지원 등 조기 신청 혜택 제공
- 올해 661억원 상당 성과 기록, 2026년에도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 노력

보이는 전문 전시회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10월 14일부터 3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모집 대상은 건설기술, 안전관리, 스마트건설, 드론·로봇·AI 기반 솔루션 기업 등 국내외 기업이며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www.k-consafe-tyexpo.com)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월 27일까지 신청한 기업은 참가비 할인과 사전 홍보 지원이 조기신청 혜택으로 제공된다. 2026년 8회차를 맞는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건설 및 안전 관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40여 개 단체가 후원하는 국제 인증 전시회다.

2026년 행사는 AI·로봇·드론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발주처·시공사·시설관리기관의 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 전시를 확대하고 모듈러 시공, 해체공법 등 건설현장 핵심 이슈를 반영한 신기술 전시 및 특별관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이번 행사는 연 평균 18.6%씩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건설 시장의 AIoT 기술 트렌드도 적극 반영한다.

이를 위해 해외 기업 유치와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하한전 특별관 운영, 산업별 컨퍼런스 및 세미나 확대, 건설안전혁신상 등 올해 호평을 받았던 프로그램들도 한층 업그레이드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최근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행사가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며, "내년 행사는 정부의 안전 강화 정책과 첨단 기술 수요를 반영해 사고 예방 중심의 기술과 솔루션을 폭넓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개최한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는 총 186개 기업이 참가하고 31개의 컨퍼런스 및 세미나가 개최되며 2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특히, 2,144건의 상담과 661억원의 계약추진 등 성과를 거두며 산업계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

HANSHIN

에어 콤프레서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점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점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